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14~09/20

1. 대러 제재 강화와 그림자 선단 대응

2. 카자흐스탄 중간회랑 개발과 철도 인프라 확충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8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대러 제재 강화와 중간회랑 개발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국방 산업과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제재 법안을 발효시키며 제재 회피 경로를 압박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은 중간회랑의 핵심 경유국으로서 물동량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운임·디지털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비는 유라시아 물류 지형의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러시아발 해운 물류는 제재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는 반면, 중간회랑은 대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화주들의 대안으로 부상하며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도 운임 인상이 실제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재의 실효성과 중간회랑의 수용 능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을 재정비하거나 우회 경로를 다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중간회랑은 유라시아 화물 운송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러 제재 강화와 그림자 선단 대응

>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 차단을 위해 러시아 에너지·국방 산업과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통과·서명됨에 따라, 러시아발 해운 물류의 제재 회피 경로가 축소되고 관련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임.**

미국 의회가 지난달 상원에 이어 수요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2026'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됨. 이 법안은 러시아 에너지·방위 산업과 제재 회피용 유조선,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직접 겨냥하며,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함.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인도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는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인도를 압박함으로써 러시아의 수출 수익을 추가로 조이려는 목적임.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는 노후 유조선을 활용한 제재 회피 운송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음. 이러한 선박들은 통상 보험·금융·선급 등 국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으로 미국의 2차 제재 위험이 커지면서 제3국 선사와 선박 관리사의 거래 회피 경향이 강화될 것임.

크렘린궁은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함.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재 강화로 러시아산 화물 운송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히 유럽·중앙아시아 노선에서 운임과 보험료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됨.

- 미국 하원, 2026년 9월 17일 찬성 262·반대 159로 법안 가결(공화당 7명 반대, 민주당 58명 찬성 이탈).
- 트럼프 대통령, 2026년 9월 19일 법안에 서명해 즉시 발효.
- 법안에 따라 중국·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
- 제재 대상에 '그림자 선단' 운영 유조선과 관련 거래 당사자가 명시됨.
- 크렘린궁, '비우호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평화 협상 복잡화 경고.

전망

대러 제재가 법제화됨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수출 물동량 감소와 우회 경로 재편이 불가피함. 단기적으로는 흑해·발트해 노선의 스팟 운임 변동성이 커지고, 그림자 선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일부 선박의 항행 중단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제재 준수 부담이 커진 선사들이 러시아 화물 취급을 축소하면서 물류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임.

시사점

화주 — 러시아행 또는 러시아발 화물의 운송 경로와 거래 상대방 선사를 재점검하고, 제재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대체 노선 확보가 필요함.

포워더 — 러시아 관련 화물의 운송 계약 시 제재 대상 선박 여부 확인 등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금융 결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

항만·선사 — 그림자 선단 또는 제재 우회 의심 선박의 기항을 거부하고, 선박 추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정책 마련이 필요함.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트럼프, 러시아 제재 법안 서명…그림자 선대 겨냥 · The Moscow Times, 미 하원, 대러 제재·관세법 통과…셰도우 선단 겨냥 (검색일: 2026-09-20)

카자흐스탄 중간회랑 개발과 철도 인프라 확충

> **카자흐스탄이 중간회랑(Middle Corridor)의 핵심 경유국으로서 물동량 증대와 인프라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가운데, 철도 운임 인상과 디지털화 정책이 물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카자흐스탄의 중간회랑 화물량은 2024년 1~8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동서 방향 환적 물동량은 55%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체 운송로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결과로 해석된다. 카자흐스탄 교통부는 조지아 바투미에서 열린 국제해사포럼에서 운송 회랑의 디지털 지도 구축을 제안하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보인다. 해당 디지털 지도는 화물 흐름 데이터를 통합해 통관·환적 병목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현대화 완료는 중간회랑의 용량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4년 6월 재개통된 이 노선은 연간 처리 능력이 기존 100만t에서 500만t으로 5배 늘어났으며, 카자흐 화물이 카스피해를 건너 유럽까지 도달하는 추가 경로를 제공한다. 카자흐 교통부는 BTK 철도를 자국의 통과 물동량 확대와 유라시아 물류 체계 효율화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입 루트를 확보하려는 화주들의 니즈에 부합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정부가 승인한 철도 화물 운임 인상은 중간회랑 운영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새 운임은 2026~2027년 23~24%, 2028년 22%, 2029년 20%, 2030년 18% 인상된다. 사회적 중요 식품의 운임은 동결됐지만 석탄·광석·곡물·비료 등 벌크 화물의 운송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러시아 금융대학교 카푸스티나 교수는 저마진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수출 기업의 국제 시장 지위가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카자흐스탄의 철도 운임은 그동안 CIS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손실은 경유 운송과 고수익 화물로 보전해 왔다. 당국의 운임 정상화는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운임 인상이 지나치면 중간회랑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중국발 유럽행 화물을 유치하려는 중간회랑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운임 인상과 병행해 수출 지원책, 간선 통행 능력 투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나온다.

- 2024년 1~8월 카자흐스탄 중간회랑 화물량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동서 방향 환적 물동량 55% 급증
- BTK 철도 현대화로 연간 처리 능력 100만t에서 500만t으로 5배 확대 (2024년 6월 재개통)
- 카자흐스탄, 운송 회랑 디지털 지도 구축 제안 – 화물 흐름, 인프라, 물류 체인 데이터 통합 목표
- 2026년부터 카자흐스탄 철도 화물 운임 단계 인상: 2026~2027년 23~24%, 2028년 22%, 2029년 20%, 2030년 18%
- 철도 운임 인상 부담은 석탄·광석·곡물·비료 등 벌크 화물에 집중될 전망, 사회적 중요 식품은 동결

전망

중간회랑의 물동량은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카자흐스탄의 철도 운임 인상과 디지털화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운임 인상이 인프라 개선과 운송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물이 북부 회랑(러시아 경유)이나 다른 대안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이후 단계적 운임 인상이 실제 물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시사점

화주 — 카자흐스탄 철도 운임 인상으로 중간회랑을 통한 운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2026년 이후 장기 운송 계약 시 비용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야 함

포워더 — 중간회랑의 용량 확대와 디지털화는 신규 화물 유치 기회를 제공하나, 카자흐스탄 구간 운임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의 적절한 가격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항만·선사 — 카스피해 횡단 운송(TITR)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카자흐스탄 악타우/쿠릭항 및 아제르바이잔 바쿠항의 하역 능력 확충과 선박 공급 확대가 요구되며,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물류 서비스 제공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스탄 중간회랑 화물 22%↑…운송 디지털화 추진 ·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통과 화물 증가 기대 · RZD-Partner, 카자흐 철도운임 2026년부터 단계 인상…5년간 최대 24% (검색일: 2026-09-20)